

이스라엘은 가자시티 점령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대 도시)

즉각 중단하라!

지난 2년 가까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대규모 폭격과 학살을 자행해 온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 점령을 위해 지상군을 투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상전 투입에 앞서 가자시티에 대한 공습을 강화해,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인 6만 5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자시티는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집을 잃은 주민 100만 명이 살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상 작전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은 남부로 피난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3개월 동안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이미 평균 20~30차례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안전 지대”라며 민간인들을 몰아 넣은 지역에서도 학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스라엘의 구호품 봉쇄로 가자지구 주민 대부분은 극심한 식량난에 처해 있습니다. 유엔

에 따르면 가자지구 인구 3분의 1이 하루 종일 아무 것도 먹지 못하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기아에 더해 보건 의료 체계와 인프라가 파괴되어 질병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상군 투입

이미 가자지구는 85퍼센트가 이스라엘의 공격을 파괴되었습니다. 매일 한 학급 규모의 어린이들(28명)이 살해 당하고 있습니다(유니세프). 부상자는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서안지구에서도 이스라엘군과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폭력이 급증하는 등 ‘느린 인종 학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상을 향한 전 세계적 분노 앞에서 서방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체합니다. 서방 국가들은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타인 ‘두 국가 방안’ 이행 촉구 결의안에 찬성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1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의 만행을 막을 제재나 지원 중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이스라엘에 막대한 군사 원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자신들이 가자 지구를 통치하고,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찬성표를 던지면서도 정작 이스라엘에 제동을 걸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등 교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매일같이 만행을 벌이고 있지만, 이 곳의 진정한 주인인 팔레스타인인들은 굴복하지 않고 굳건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연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경 없는 기자회’의 호소로 한국 언론을 포함해 전 세계 언론인들이 이스라엘의 언론인 표적 살해에 공동으로 항의했습니다. 한국의 보건의료인들과 교사들도 가자 학살 규탄 성명 발표 등 연대에 나섰습니다.

얼마 전, 가자지구의 무함마드 알카티브 기자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팔연사)에 메시지를 보내 “끝까지 진실을 전할 것”이라며, ‘한국에서의 연대에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하고 내쫓으려는 이스라엘에 함께 항의합시다.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역사적 팔레스타인 땅) 팔레스타인이 해방될 때까지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합시다!

2025년 9월 19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팔연사)

팔레스타인 연대 포럼

저항의 2년 연대의 2년

일시 9월 27일(토) 오후 1시
장소 서울 YWCA 대강당 (동지문인구역, 명동역 부근)
참가비(하루) 20,000원 | 대학생 할인 13,000원
• 아랍어·영어 통역 제공(통역기 제공) • 해외 연사는 온라인 발매

1:00

소셜로 보는 팔레스타인 근현대사

고남일

소설가, 한국작가회의 전 사무총장
문인들의 팔레스타인 산/책 모임 “기록과 기억” 운영

2:20

팔레스타인은 굴복하지 않는다

파도와 바르구리

변호사, 지도자 마르완 바르구리 및
모든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을 위한 국제 캠페인 대표

4:10

해방을 향해: 팔레스타인의 대외와 글로벌 연대

무함마드 사와프

가자지구 영화 감독
2024년 국내 ‘윈즈페터 국제포도상’ 수상
(<가자로부터 온 목소리>)

무함마드 알카티브

가자지구 프리랜서 영상 기자
최근 <시사인>에 ‘죽은 동료의 아이들이 울부짖을 때마다’ 기고

가다 카르미

팔레스타인인 작가이자 의사.
영국 엑서터 대학 ‘아람-이슬람 연구소’ 전 연구원

이스라엘은 인종학살 멈춰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가자 학살 2년

10.12

전국 집중 행동의 날

🕒 10월 12일(일) 오후 2시
📍 서울 열린송헌녹지광장 입구
(안국역 1번 출구)

- 재한 팔레스타인인들이 참가하고 사회자와 연설자로 나섭니다.
- 아랍어·영어·벵골어·인도네시아어·한국어 통·번역 제공
- 집회 후 이스라엘 대사관 방면 행진
- 여러 지역에서 집회 참가 버스 운행 예정

1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후원 계좌: 신한은행 110-173-517650 (예금주 최영준)

보내 주신 후원금은 연대 행동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행진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문의: 010-7550-2131

웹사이트



재한 팔레스타인인, 중동·북아프리카인 등 여러 이주민, 한국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합니다